



가스펠  
프로젝트

**CHRONOLOGICAL**  
예수로 읽는 연대기 성경공부

**03**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왕  
**The Anointing of David**

구약04 | Old Testament 04



가스펠  
프로젝트

**CHRONOLOGICAL**  
예수로 읽는 연대기 성경공부

“창조의 하나님  
***God the Creator***”

**01** 창조  
Creation

03

## 03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왕 | The Anointing of David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 요약 | Summary

이 과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을 거두신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심을 보여 줍니다. 또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주님이 구조해 주실 것을 믿는 다윗 왕의 믿음과 자기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 편에서 적을 물리쳐 줄 전사 같은 왕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불타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본보기를, 즉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의 왕을 엿볼 수 있습니다.

In this session, we will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after God rejected Saul as king. He directed the prophet Samuel to anoint David, the son of Jesse. The story of David demonstrates that God does not judge people based on worldly expectations. David's battle against Goliath is an example of a king's trust in the Lord's deliverance and of God's faithfulness to accomplish a decisive victory for His people. God's people needed a warrior-king to defeat the enemy on their behalf, and in the story of David, we catch glimpses of the promised King we need—as well as an example of godly obedience from a heart on fire for God.

### 성경 | Scripture

사무엘상 16장 1~13절; 17장 20~26, 33~37, 45~51절  
1 Samuel 16:1-13; 17:20-26,33-37,45-51

### 포인트 | The Point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따르며 백성을 위해 싸울 왕을 찾으신다.

God is looking for a king who reflects His heart and will fight for His people.

### 등장인물 | Characters

□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The Triune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 사무엘(마지막 사사,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 바쳐짐)

Samuel - dedicated to the Lord before his birth; prophet and final judge of Israel

▣ 다윗(이새의 막내아들. 사울에 이어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받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품의 소유자. 골리앗을 물리침)

David - youngest son of Jesse who was anointed to be king following Saul. David is recognized for a number of things, in terms of both his character—he followed God—and his accomplishments—he defeated Goliath, etc.

▣ 골리앗(블레셋 군대의 무적의 용사. 주님의 군대를 조롱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함)

Goliath - feared warrior for the armies of Philistia; was killed by David in battle after mocking the armies of the Lord

### 메세지 좌표 | Plot

지난 과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기준이나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 현장을 마주한 사무엘상 중반부터 이야기의 중심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다윗을 양치기로 처음 만나게 되는데, 왕이 되리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양치기였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해 내는 왕이 될 것입니다. 거인을 거꾸러뜨린 소년 영웅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In the previous session, we saw how the Israel's first king, Saul, failed to live up to God's standard and the expectations of God's people. In the middle of the Book of 1 Samuel, after the prophet Samuel confronted Saul about his disobedience, the narrative transitions from the story of Saul to the story of David.

We are introduced to David the shepherd boy—certainly not the king anyone would expect. He will go on to be a great man of God, but his entrance onto the scene is hardly impressive. In every way, he is—to put it bluntly—ordinary. But he will become the kind of king who trusts in God's provision for his success and finds victory. And perhaps in one of the most famous Bible stories of all time, David will be the young champion who brings down a giant.

## Intro

5-10분 | 5-10 minutes

### A.

사울의 불순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난 과를 간단히 복습하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 왕을 가두고 자신을 위해 가축을 남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왕을 세우시는데, 훗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자라고 일컬어지게 될 사람입니다.

복습을 마친 후 조를 나누어 다음 질문을 놓고 토론하게 하십시오.

-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왕에게서 볼 수 있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왕에게서 볼 수 있는 자질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왕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까?
-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차기 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계보에서 영원하신 왕이 나온다는 것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Briefly review the previous session, reminding students about Saul's disobedience and rejection. Saul was God's anointed king, the one to be ruler over Israel. God gave Saul a mission—completely destroy the Amalekites. But Saul imprisoned the king and kept the livestock for himself. Saul failed to fully obey God's commands. Saul turned away from God, and God

rejected him as king. God had a new king in mind, one who would later be described as a man after God's own heart.

Place them in small groups or pairs depending on the size of your group. Within their groups, invite them to discuss the following:

- ***What are some qualities of a king who refuses to follow God's commands? A godly king?***
- ***What do you think it means to have a king who reflects God's heart?***
- ***In what ways do people turn away from God today?***
- ***How can you reflect God's heart in your own life?***

Explain that David was the next king Samuel anointed, but most importantly, an eternal King would come from David's lineage. A King who did not just reflect God's heart—He was God's Son, Jesus.

## **B.**

인터넷을 이용해 지도력과 관련된 명언을 찾게 하십시오. 검색어를 다양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세요. 좋아하는 지도자를 떠올리고 그들이 한 말을 찾아보도록 권하십시오.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명언을 세 개씩 제출하게 합니다(전체 수에 맞춰 개수를 정하세요).

명언을 크게 읽고 왜 마음에 들었는지 발표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아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이웃을, 혹은 자신이 지도자로서 섬겨야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For this option, they will need access to the Internet in some capacity. Have your group members do a scavenger hunt online for quotes about leadership. They should each come up with one to three favourite quotes (based the number on how many group members you have). You might need to help them conduct their search, for example you may need to give tips on what to do other than type "leadership quotes" into a search engine. Encourage them to think of their favourite leaders and look up quotes by those people.

Once everyone has found a quote, have them read it aloud and share why they like it. Discuss what they found, making sure to point out any quotes that apply to pursuing the heart of God. Given the probability that most of the quotes didn't involve this premise, point out how loving God with all one's heart, mind, and soul will result in loving one's neighbour, including those whom students may serve as a leader.

이 회색 세로줄이 있는 단락은 일반 교재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Every time you see this bar in this booklet, it indicates the same material is also found in the personal study guide as well.

## HIS STORY

20-30분 | 20-30 minutes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야기  
*God's story of Redemption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 01. 하나님의 안목은 달라! | GOD'S EXPECTATIONS ARE DIFFERENT FROM THE WORLD'S

이야기는 사울의 죄로 인해 깊은 고뇌에 빠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고, 그가 잘해 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만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죄는 사무엘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엘은 공동체 각 구성원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3절에는 이새라는 사람이 사무엘 앞에 일곱 아들을 차례대로 선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압은 이새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앞으로 나와 왕으로서의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생긴 데다 키도 크고 건장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기에 충분한 인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별다른 인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엘리압의 외모나 키나 풍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새가 선보인 일곱 아들이 차례대로 거절당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달아 보셨고 그분의 기준에 그들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새는 아들들을 차례대로 내보냈고, 사무엘은 그들을 차례대로 거절했습니다.

이새의 일곱 아들을 모두 거절한 사무엘이 그에게 다른 아들이 남아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삼상 16:10~13).

마침내 사무엘이 막내아들에 관해 물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는데, 이는 이스라엘에서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새조차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만큼 그는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이는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도 그가 외적으로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는 그의 삶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이 그의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범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자신을 비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전적으로 확신했던 사울과는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서 멀어졌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 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The story picks up with the prophet Samuel in deep distress because of Saul's sin. After all, Samuel had anointed him, and Saul seemed like such a promising prospect. But the king turned out to be nothing like what Samuel had hoped. Saul was faithful only to himself, and the king's sin grieved the prophet.

God sent Samuel on a mission to find the next king of Israel. To help with that task, Samuel ordered a consecration for the sacrifice, in which each member of the community offered themselves to God. This was the perfect moment for Samuel to inspect the sons of Jesse, who would come marching by him in succession.

In 1 Samuel 16:1-13, we see a man named Jesse present seven of his sons before Samuel during this time. Eliab was the oldest of Jesse's sons, so he came forward first, looking as kingly as possible. Samuel took one look at him and thought he had found his man—good-looking, tall, and strong. Definitely kingly material. God, however, was unimpressed. Eliab's appearance, height, and stature did not even register as relevant qualities.

One by one we read that each of the seven sons that Jesse initially presented were rejected. We are not given specific reasons why, only that while outwardly they may have seemed qualified, evidently God weighed their hearts and found them lacking. One by one, Jesse trotted his sons out, and one by one, Samuel shot them down. It is an Old Testament version of Cinderella, as the brothers fruitlessly try to cram themselves into the glass slipper of Israel's kingship.

Then a surprising turn of events takes place. Samuel asked Jesse if there were any sons left out. Take a look:

***And Jesse made seven of his sons pass before Samuel. And Samuel said to Jesse, "The Lord has not chosen these." Then Samuel said to Jesse, "Are all your sons here?" And he said, "There remains yet the youngest, but behold, he is keeping the sheep." And Samuel said to Jesse, "Send and get him, for we will not sit down till he comes here." And he sent and brought him in. Now he was ruddy and had beautiful eyes and was handsome. And the Lord said, "Arise, anoint him, for this is he." Then Samuel took the horn of oil and anointed him in the midst of his brothers. And the Spirit of the Lord rushed upon David from that day forward. And Samuel rose up and went to Ramah. (1 Sam. 16:10-13)***

Samuel finally asked about the youngest son. David was a shepherd, which was not a coveted position in Israel. He was also the smallest, perhaps to the point Jesse didn't even think his youngest son could be a king. The text implies that David was outwardly unimpressive, even to those who knew him best; yet he was the one God chose!

David would go on to lead an extraordinary life, but we must not miss the truth that every extraordinary event in his life happened in spite of his own ordinariness. David had access to the power of an extraordinary God, in part because he did not think he was extraordinary in himself. This is in strong contrast to Saul, who was fully convinced of his own greatness, a folly that led God's Spirit away from him and brought him crashing back down to earth.

→ ***Out of all of Jesse's sons, why do you think God chose David to be the next king? (p. 22, PSG)***

## **02.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워라! | GOD WANTS A KING WHO WILL FIGHT FOR HIS PEOPLE**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새가 다윗을 전장에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보내 안부를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짐을 꾸려서 자신이 돌보던 양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기름부음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게다가 양을 치면서 실전같은 훈련을 쌓았던 터라 사자나 곰에 비하면 골리앗은 그리 위협적인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향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 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삼상 17:20~26).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는 자가 나타났다는 말이 사울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본 사울은 다윗의 형제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삼상 17:33~37).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약자의 비유로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만 하면 어떤 상황도 이겨 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읽고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건방지게 나서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물론 다윗이 매우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 냈는지, 그의 용기를 보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은 전쟁의 전형을 보여 줍니다. 두 사람이 맞붙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판 붙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는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도발하며 말한 대로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삼상 17:45~51).

We pick up the story in 1 Samuel 17, when Jesse sent David out to visit his brothers on the battlefield. So David left the tending of sheep, packed his bags, and headed to the front line.

***And David rose early in the morning and left the sheep with a keeper and took the provisions and went, as Jesse had commanded him. And he came to the encampment as the host was going out to the battle line, shouting the war cry. And Israel and the Philistines drew up for battle, army against army. And David left the things in charge of the keeper of the baggage and ran to the ranks and went and greeted his brothers. As he talked with them, behold, the champion, the Philistine of Gath, Goliath by name, came up out of the***

**ranks of the Philistines and spoke the same words as before. And David heard him. All the men of Israel, when they saw the man, fled from him and were much afraid. And the men of Israel said, "Have you seen this man who has come up? Surely he has come up to defy Israel. And the king will enrich the man who kills him with great riches and will give him his daughter and make his father's house free in Israel." And David said to the men who stood by him, "What shall be done for the man who kills this Philistine and takes away the reproach from Israel? For who is this uncircumcised Philistine, that he should defy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1 Sam. 17:20-26)**

Word got back to King Saul that someone might be up for the challenge of taking on Goliath. But as soon as David arrived, Saul took up the same tone with him that his brothers used.

**And Saul said to David, "You are not able to go against this Philistine to fight with him, for you are but a youth, and he has been a man of war from his youth." But David said to Saul, "Your servant used to keep sheep for his father. And when there came a lion, or a bear, and took a lamb from the flock, I went after him and struck him and delivered it out of his mouth. And if he arose against me, I caught him by his beard and struck him and killed him. Your servant has struck down both lions and bears, and this uncircumcised Philistine shall be like one of them, for he has defied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And David said, "The Lord who delivered me from the paw of the lion and from the paw of the bear will deliver me from the hand of this Philistine." And Saul said to David, "Go, and the Lord be with you!" (1 Sam. 17:33-37)**

David wasn't affected by the discouragement of people around him. He was the anointed king and he trusted in God's power. Besides, he had done his real training in the pasture, and compared to a lion or a bear, Goliath was not terribly impressive.

**Then David said to the Philistine, "You come to me with a sword and with a spear and with a javelin, but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whom you have defied. 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into my hand, and I will strike you down and cut off your head. And I will give the dead bodies of the host of the Philistines this day to the birds of the air and to the wild beasts of the earth, that all the earth may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and that all this assembly may know that the Lord saves not with sword and spear.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you into our hand." When the Philistine arose and came and drew near to meet David, David ran quickly toward the battle line to meet the Philistine. And David put his hand in his bag and took out a stone and slung it and struck the Philistine on his forehead. The stone sank into his forehead, and he fell on his face to the ground. So David prevailed over the Philistine with a sling and with a stone, and struck the Philistine and killed him. There was no sword in the hand of David. Then David ran and stood over the Philistine and took his sword and drew it out of its sheath and killed him and cut off his head with it. When the Philistines saw that their champion was dead, they fled. (1 Sam. 17:45-51)**

There are people today who love to use this as an analogy about the underdog: *no matter the odds, you can do it! Just believe in yourself!* Sadly, this misses the point. God does not want us to read this story and come away with a cocky assurance that given the right confidence, we can

achieve whatever we set our minds to. Yes, we can glean insight from David's courage and how he overcame insurmountable odds. But that's not the main point of the story.

The entire scene of David's conflict with Goliath is cast in the light of representative warfare. When David took on Goliath, it was not merely one man against another; this was Israel and Philistia, squaring off. What's more, the battle between Israel and Philistia represented the struggle between their gods, as both David and Goliath mentioned in their taunting monologues. And when he won, the entire nation of Israel shared in his representative victory, even though they did nothing to earn it themselves.

## 그리스도와 의 연결 | Christ Connection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할 존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 죄, 죽음의 위협을 외면하고 장막에 숨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신해 악을 물리칠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또 다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 닦으신 길을 보여 줍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자기 죽음과 부활을 통해 뱀을 처단하고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순종하는 본보기를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데, 아무도 승리하리라 기대하거나 선택하지 않았지만 자기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거뜰히 이기실 왕이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We stand in a situation similar to Israel, in need of a representative to save us from evil. We are like the Israelites: hiding in our tents, ignoring the threat of Satan, sin, and death. What we need, like Israel, is a representative to defeat evil on our behalf. This story prepares the way for God to raise up another King who would accomplish another decisive victory—King Jesus who will come and slay the serpent and rescue people from sin and death.

In David, we see a picture of courageous faith in God's power. We also catch a glimpse of the bigger story of the Bible and of the coming King whom no one would have expected or chosen to win the victory, but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He is mighty to save.

### 알짬 교리 99: 왕이신 그리스도 | 99 Essential Doctrines: Christ as King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과거 영원에서부터 언제나 자기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두 영역에서 피조물 가운데 일부가 그분을 거슬러 반역했으며, 그 여파로 세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자신의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킬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왕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실 때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God has always been King over His Kingdom from eternity past, whether in heaven or on earth. Yet some of His creatures in both realms have rebelled against Him, leaving destruction in their wake. To restore His broken world, God promised a King who would deliver His people and restore all of creation. The promise of a coming King finds its fulfillment in Jesus Christ, and looks forward to its perfection when Jesus returns for His bride, the church.

## YOUR STORY

10-15분 | 10-15 minutes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는 곳 | *Where your story meets His.*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나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면서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갖는 일반적인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문화는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자기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모든 종류의 성격을 사용하십니다.
- 외모나 사회적 지위만 보고 사람을 선불리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은 다른 사람을 그릇 판단하는 데 관해 어떤 경고를 줍니까?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진리가 어떤 면에서 좋은 소식인 동시에 나쁜 소식입니까?  
외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으니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나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교훈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빚어 가시나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God's Story has always been designed to connect with your story. It is because of His Story that our stories make sense, have meaning, and carry on into eternity. Use the questions below to help think through how His Story connects with your own.

- **What are some expectations our culture usually holds for those who will become effective leaders?**

For the most part, our culture tends to believe that physical appearance is important, those features that are external in nature. It is also assumed that those with an extraverted personality are at an advantage over those who are more introverted. However, God is more concerned about the internal state of one's heart, and history can testify to the fact that God uses all sorts of personalities for His glory and the good of others.

- **What are some snap judgments we tend to make about others based on their appearance? How does this account warn us against misjudging others?**

Answers to this will vary.

- **How is the truth that "God looks at the heart" both bad news and good news for you?**

On the one hand, it is good news in that we aren't judged by external standards. However, it is bad news as well as it is clear that all of our hearts are sinful and in need of being made new. The good news is that giving us a new heart is exactly what God does when we trust in Jesus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s.

- **What is something new you have learned about this familiar story of David and Goliath? What does it teach us about the type of people God is moulding us to become if we are followers of Christ?**

Answers to this will vary.

## YOUR MISSION

10-15분 | 10-15 minutes

### 생각 | Head

이 이야기에서 진짜 거인은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앞에서 떨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군림한 불신앙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너무 자주 엘리압처럼 굽니다. 공동체와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원대한 비전을 비웃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 대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어려운 순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 이런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같이 기도하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한 진리와 약속을 일깨우기,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확신시키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In one sense, the real giant in this story is the unbelief that dominated the hearts of God's people as they stood in cowardice and unbelief against Goliath and the Philistine army. Unfortunately, the

same opposition is often at work in our churches today. Too often, we are like Eliab—scoffing at other believers’ grand visions to reach their communities and their world. How different would our schools and cities be if, instead of responding with Eliab’s cynical spirit, we assumed with David that God was eager to work powerfully in the lives of His people?

- **Share about a difficult time when you experienced similar unbelief in God’s power.**

Answers to this will vary.

- **What are some ways we can encourage others to boldly live out their faith in such difficult moments?**

Answers may include: praying with others, reminding them of specific truths and promises from God’s word, assuring them of God’s character and purpose for them, etc.

## 마음 | Heart

다윗은 중요한 능력과 자질을 그가 양 치던 초원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용기를 길렀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 떼를 지켜 냈으며, 양 떼를 씻기고 돌보며 경손을 배웠습니다. 초원은 궁전과 달리, 정직한 마음과 약한 자를 돌보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처와 초원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매만지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원을 무시하거나 고난을 억울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작업실이기 때문입니다.

- **당신이 경험했던 '초원'은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 **초원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나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When you think about it, the pasture was the place where David honed some of the most vital skills in his life. It was there that he grew in courage, fending off lions and bears from his helpless flock. It was there that he learned humility, having to clean up after the sheep day after day. The pasture was the type of place where you could develop an upright heart and shepherding attitude versus growing up in the palace. This is why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God is at work in the different pastures we live in, forging our character, patience, and integrity. We ought not despise the pasture or resent our suffering: these are God’s laboratories for moulding our hearts to trust in His deliverance.

- **What “pasture” are you in right now or have you experienced in the past?**

Answers to this will vary.

- **What does it look like for you to faithfully trust God through that experience?**

Answers to this will vary.

## 행동 | Hands

우리는 그리스도와 의 관계를 통해 새 마음과 변화된 성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 주변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변화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전투했듯,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과 영광으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중대시해야 합니다.

- 이 과에서 도전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높여 드리겠습니까?  
학교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친구에게 복음 나누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As God's people who have been given new hearts and transformed characters through a relationship with Christ, we should seek to live out this transformation in front of those around us, pursuing them with the same message of grace that found us when we were lost in our sins. In a similar way that David was jealous for God's name and glory, we too should seek to make much of Christ and His salvation by pointing others to His great name and glory.

- ***How does this story challenge the way you live?***  
Answers to this will vary.
- ***What are some ways you can make much of Jesus this week?***  
Answers may include: doing my best in school and thereby glorify God in my education; sharing the gospel with a friend; etc.